

[그때 그 이야기]

■ 림순자

전국 학생 근시를 4년 연속 하락

두부공장 아주머니



림순자 프로필 :
1959년 연길에서 출생.
연변작가협회 회원, 연변여성문인협회 회원, 재한문인협회 리사.

아련한 기억의 물결을 따라 반세기를 훌쩍 넘긴 세월 저편을 바라보노라면 한분의 얼굴이 또렷이 떠오른다. 내 생애에서 더없이 소중한 고마웠던 천사 같은 분이다.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령혼을 기리고 내 삶을 밝혀주었던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지난 세기 60년대말 판사였던 아버

지가 사망하면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신장질환으로 자리에 누워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열세살 큰언니가 어머니 역할을 맡아 살림을 꾸렸고 열살이던 나는 아버지 몫을 대신해야 했다. 언니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면 나는 불을 때고 물을 길고 어머니의 약을 달였다. 병약한 언니 대신 힘든 일은 대부분 내 차지였다.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난방이었다. 집이 추우면 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상 석탄을 넉넉히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진 것이 동네 두부공장에서 버린 재더미를 뒤져서 폭스를 주어오는 일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두부공장으로 향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재더미를 뒤져 한소쿠리씩 폭스를 주어오곤 했다. 갈라진 손으로 쏘아지는 잠을 쫓으며 폭스를 쫓기만 하는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 힘든 고역이었다. 하지만 가난은 나를 일찍 철들게 했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하여 단 한번도 폭스 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매일같이 나오는 나를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두부공장 아주머니가 궁금한 듯 내게 다가와 사정을 물으셨다. 집안 형편과 어머니의 병환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은 한참 말

없이 서계시다가 갑자기 이글거리는 불을 큰 삽으로 퍼내 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담아가거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는 내가 나타날 때마다 타다 남은 폭스를 일부러 재더미에 뿌려두셨다. 덕분에 나는 훨씬 수월하게 한소쿠리씩 폭스를 채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를 얻어두었다가 가끔씩 쥐여주셔서 집에 가서 끓여먹었다고 했다. 모두가 식량난에 허덕이던 시절 그 나눔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콩비지를 끓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날이면 허기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우리 가족에 아주머니의 손길은 한줄기 빛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들었다.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자애로운 눈빛, 서로 돕는 미덕, 그리고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이 썩었다.

그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다. 지금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내 손을 잡아주던 그분의 따뜻한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힘들고 서글픈 기억이지만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여긴다. 천사 같은 한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의 사랑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인간애였다.

감동적인 드라마나 책을 접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며 그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 삶에 이어진 사랑의 릴레이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 글로 그때 말로 다하지 못했던 깊은 감사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이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온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사랑은 기억되는 순간 이미 영원이 된다. 그분은 내게 불씨 하나를 건네 주셨고 그 불씨는 지금도 내 안에서 꺼지지 않은 채 수많은 겨울을 지나고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겨울을 녹여준 적이 없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봄이 되어본 적이 없는지 되물게 된다. 두부공장 아주머니가 내게 남겨준 것은 단지 그해 겨울의 폭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는 수많은 온기의 시작이었다. 사랑은 그렇게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식하며 결국엔 모두가 령결된 거대한 온기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같다.



2월 25일, 교육부 '건강제일' 업무배치회의에서 전한 데 따르면 2024년 추출 검사 결과 중소학생 체질 건강 총체적 우수률은 2016년에 비해 9.3% 포인트 상승하고 학생의 키, 폐활량 등 지표가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근시 예방통제 면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학생 전체 근시률은 '4년 연속 하락', 2024년에는 50.3% 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3.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매년 0.5% 포인트 하락 예

방통제 목표를 달성했다. 학교 식품안전 면에서 현재 전국 중소학교 식당의 '3가지 예방' 시설 및 설비 배치율, 등반급식제도 구현률, 직원 교육률, 급식감독관리학부 모위원회 보급률,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민원 처리율, 감독관리원의 매달 '학교급식' 특별감독관리 실행률은 기본적으로 '6가지 100%'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터넷+깨끗한 주방' 보급률이 99.9%에 달하며 현금 및 그 이상 교육, 시장감독관리 등 해당 부서간의 정보 상호 령결률은 99.3%에 도달했다. /인민넷-조문판

새 학기, 아이에게 선물하고 싶은 일곱마디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선생님 과 학부모들이 아래의 따뜻하고 힘찬 말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이 말들이 아이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심어주어 새 학기를 맞아 용감히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를 바란다.

건강이 제일, 체육단련을 강화해야
신체는 성장의 기반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고 강한 체력을 키워야 지식을 탐구하고 꿈을 추구할 수 있으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식은 인생의 가능성을 넓힌다
여러분이 읽은 책과 배운 지식은 여러분의 기쁨과 말투, 그리고 마음 속에 깃들었다. 이렇게 쌓인 지식은 여러분이 걸어갈 길에 놓여있으며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생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준다.

항상 호기심과 지식욕을 유지해야
호기심은 세상을 주도적으로 탐험하는 첫걸음이다. 지식에 대한 강한 열망은 여러분을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도록 이끌며 학습은 고생이 아닌 즐거움이 된다. 사랑이 있다면 삶은 더욱 재미있어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끈기를 가져야
인생에는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으며 늘 순탄할 수만은 없다.

일시적인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확실한 일은 최선을 다하고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의 끈기가 결국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믿어야 한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져야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장점을 살리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 가라.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신감이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아끼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래일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를 인지해야
래일은 또다시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래일이 많아도 현재의 노력을 소홀히 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환상 속에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힘든 나이에 안일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남을 도울 때는 아낌없이 도와 주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에 대한 보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주변의 선의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중국교육보

교육부 : 청소년학생 심신건강 수준 전면 제고해야

'건강제일' 교육 리념을 심층적으로 실행하고 건강한 학교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청소년학생들의 심신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건강한 학교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학교 체육사업 강화, 학교 미육사업 강화, 학교 로동교육사업 강화, 심리건강교육 심화, 근시 종합적 예방통제, 체중 효과적 관리,

교정 식품안전 보장, 생명안전교육 강화 등 8가지 면의 중점 임무를 배치했다.

의견은 학생 체질강건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체육과 건강 수업을 개설하고 충분히 운영하며 중소학

생들의 종합 체육활동 시간을 매일 2시간 이상 보장하고 '휴식시간 15분' 제도를 추진하며 학교 음식의 각종 사업 관리를 엄격히 규범할 것을 제기했다.

/신화사



3월 2일, 연변주 근 17만명 대, 중, 소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새 학기를 맞이했다. 사진은 당일 아침, 연길시연신소학교 학생들이 씩씩하게 등교하는 모습이다. /중국조선족소년보

朝夕奔梦

友诚敬爱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业国治正等由谐明主强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濮阳 任明兆作